

출가·열반절 기념 지상법석

“자기 마음 제대로 챙기고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52)

明教嵩禪師尊僧篇

(명교승선사존승편) ④

行其中道則不空不有也 其絕學也 難念 淨淨 純真一如 行其中心不偏不倚 其德也 難測 其德也 難測 其德也 難測

중도(바른법)를 행하는 즉 공에도 빠지지 않고 유에도 빠지지 아니하며 배움에 배어나기로는 한생각 여의어 그대로 청정하니 본성 그대로 법다운지라.

不復有所分別也 不復有所分別也 不復有所分別也 不復有所分別也 不復有所分別也

다시금 분별 사랑할 바가 있지 않다. 스님이여, 그 사랑됨이 도에 지극하며(사무치며) 그 마음됨이 끝간데 없이 넓고 넓으며 그 덕됨이 갖추어있고

其爲道大 其爲賢 非世之所謂賢也 其爲道大 其爲賢 非世之所謂賢也 其爲道大 其爲賢 非世之所謂賢也

“스님됨은 안일 구하는 것도 아니며 따뜻하고 배부르고자 함도 아니다”

기위성 비세지소위성야

그 도로 말하면 천지를 덮을만큼 크고 어진것으로 말하면 이른바 세상에서 어질다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며 성스럽기로 말하면 이른바 세상에서 성스럽다 말하는 그런것이 아니라

出世殊勝之賢聖也 僧也 如此 可不尊乎 出世殊勝之賢聖也 僧也 如此 可不尊乎

출세간의 수승한 어질과 성스러움이라. 스님이 이와같이 가히 존귀하지 않겠는가.

釋難文

(석난문) ①

希顏首座 字 聖性 剛果 通內外學 希顏首座 字 聖性 剛果 通內外學 希顏首座 字 聖性 剛果 通內外學

희안수좌의 다른 이름은 성도다. 성품이 강직하고 판단성있어 경전과 다른 학문에 달통하고 기종과 절개로서 스스로를 지키더니

遊歷罷 歸隱故廬 遊歷罷 歸隱故廬 遊歷罷 歸隱故廬

선지식을 찾아 떠돌던 행각을 마치자 예전의 움막으로 돌아가 은거하며 세속의 자취를 끊고 항상 문을 닫아 걸고 편안히 앉아서

非行誼高潔者 莫與友也 非行誼高潔者 莫與友也 非行誼高潔者 莫與友也

행실과 뜻이 높고 깨끗한 자가 아니면 더불어 벗하지 않았다. 세상에 이른바 공자(재상이상의 벼슬)와 귀인이 여러번 사함을 맡기려하되 끝내 대담하지 않았다.

時有修行 名參已 微爲僧 侍左右 時有修行 名參已 微爲僧 侍左右

이때에 한 어린 행자가 있어 이름을 참이라 했는데 스님이 되려는 생각에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과 열반에 드신 날을 기념해 경건주간을 정하고 특별히 정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수행에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야 아니겠지만 요즘처럼 번잡스러운 세상에 승가의 수행자들도 이일지일 바쁘게 재가자들이야 어디 자기 마음만을 챙기고 산타니까. 일주일이거나 경건한 마음으로 정진한 출가의 의미를 새기고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다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밝아지는 것이겠지요. 오늘 나는 출가와 열반에 대한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 미리 아셔야 할 것은 나의 얘기가 다 쓸모가 없는 것일 겁니다. 나는 출가를 했지만 그래서 선방에서 여러해를 살아오고 있지만 아직 깨달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얘기는 현명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알아내는 것이니 나같은 사람의 말에 고달리지 말아야 하는 것임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출가는 글자 그대로 집을 나간다는 것인데, 이 세상의 가장 큰 진리를 깨닫는 공부를 위한 수행을 목표로 집을 나가는 것을 출가라 합니다. 무작정 현실이 싫어서 무슨 불만이 있어서 반항심으로 집을 나가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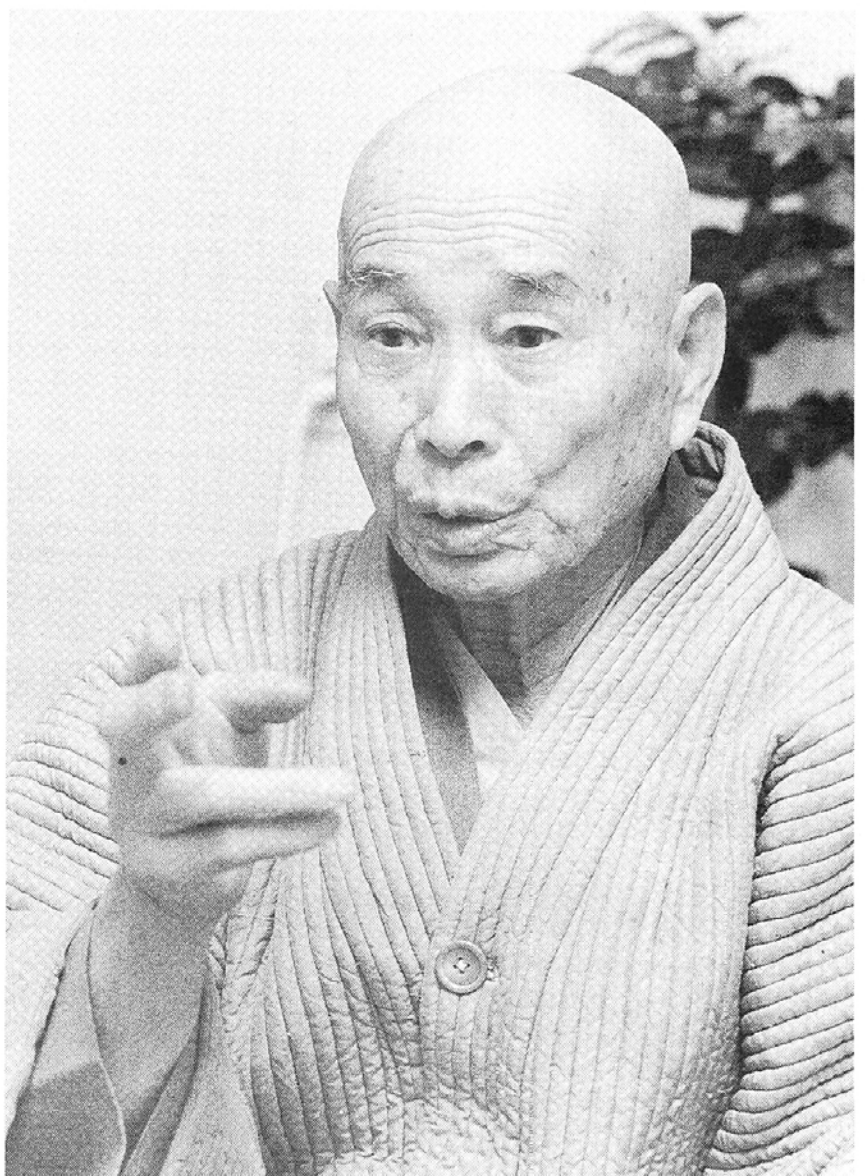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왕자자리도 버리고 고통근원 알기위해 출가하셨습니까

은 출가라 하지 않고 가솔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가는 분명한 목적 다시말하면 견성성불의 위대한 원력을 이루려는 결단의 첫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라에 따라 출가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각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출가로 인해 구도의 행장이 비로되는 것은 대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자리는 좋은 신분을 버리고 출가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생노병사의 인간 고통이 어디서 왜 오는 것인지 그것을 영원히 떠날 수는 없는지를 알기위해 출가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중에 부처님이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기 위해 왕자의 자리도 버리고 출가 했다고 말하거나 생각 하는 분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에는 틀린점이 있으니까요. 왕자인 고타마 싯타르타는 수행해서 부처가 되겠다는 목적(욕망같은 것) 때문에 출가 한 것이 아니라 생노병사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떠나고자 출가하여 수행 했고 마침내 깨달았으니 그 깨달은 자리에서 부처가 된 것이란 겁니다.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이 앞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근원과 그것을 여의려는 생각이 앞섰다는 것은 중요

구암스님 <구암암주진>

- 약력
· 1918년 생
· 효행스님을 은사로 출가
· 60년 구암스님 계사로 사미계수지
· 66년 지운스님계사로 비구계수지
· 92년부터 천축사 무문관에서 6년간 두문불출정진
· 해인사, 통도사, 동화사 등 선원에서 수행



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동서남북의 문을 나가 생노병사에 허덕이는 인간의 실상을 보고 그 원인과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 누구도 명쾌한 답을 해 주지 않으니 부처님은 직접 그 의심을 풀기 위해 밤중에 성을 넘어 출가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처님께서 보신 일생 가운데서 출가가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분석해 알아보는 의미까지 따져서 시비할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요즘은 성불한다, 성불 해라, 성불 합시다란 말을 너무 쉽게 쓰고 있는데 그런 말을 가벼이 쓰는 것과 진실로 철저히 수행을 하며 성불의

철한 수행을 하느냐가 문제이지요. <초발심자경문>에 '어떤 일이든 하지 않으려 하는 것 뿐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이 있지요. 내가 동방산 천축사 무문관에 6년 두문불출 정진에 들어간다고 하니 구암스님께서 '생사 두 글자를 이미 붙이고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정진하라'고 격려하시더군요. 실로 수행은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깨달음에 목숨을 연연하지 않는 의연함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무문관 얘기가 나왔으니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출가한지 얼마안된 어느 날 그러니까 동화사 금당에서 결재중일때 천축사에서 무문관을 열고 6년간 두문불출

불교 성지순례

대만 성지순례 3박4일 4월 25일 출발 모집중(확정)

특별기획 3 중국 불교 성지순례 9일
●일 정: 서울-상해-보타산(2)-낙가산-영파(1)-천태산-항주(1)-구화산(2)-소주(1)-상해(1)-서울
●동참금: 135만원
●기간: (1차) 4월 8일-4월 16일 (2차) 5월 25일-6월 2일 (3차) 6월 20일-6월 28일

인도 성지순례 9일
●일 정: 서울-델리-아그라-바라나시-부다가야-라지그르-나란다-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니-발람푸르-기원 정사-델리-서울
●동참금: 150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일 정: 서울-콜롬보-아누라디푸라-하바라나-플른나루아-시기리야-덤볼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동참금: 118만원

대만 성지순례 5일
●일 정: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동참금: 65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 5일
●일 정: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보로부두르-자카르타-서울
●동참금: 95만원

미얀마 태국 성지순례 8일
●일 정: 서울-양곤-파간-만달레이-양곤-페구-양곤-방콕-서울
●동참금: 145만원

HVECHO ADVENTURE TOURS, LTD. 이츠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대)
*각 사찰, 신도회 단체 성지순례, 수시 출발·상담환영 (일정조정 가능)

특별기획 1 중국 티벳 네팔 9일
●일 정: 서울-상해(1)-성도(1)-라사(1)-장제-시가체(1)-라사(2)-카트만두(1)-기내(1)-서울
●동참금: 230만원
●기간: (1차) 3월 17일-3월 25일 (2차) 5월 12일-5월 20일 (3차) 6월 23일-7월 1일

특별기획 2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일 정: 서울-상해(1)-계림(2)-서안(1)-낙양(2)-용문석굴-소림사-정주(1)-태원-오대산(1)-대동(1)-운강석굴-북경(2)-서울
●동참금: 180만원
●기간: (1차) 3월 23일-4월 4일 (2차) 4월 22일-5월 4일 (3차) 5월 27일-6월 8일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특별 기획상품을 마련하였사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원합니다.
-혜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송합-